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스페인의 오르구요 게이

허수진

오르구요 게이의 시작과 역사

오르구요 게이(Orgullo Gay)라고 알려진 성소수자 축제는 6월 28일에 열리는 LGBT의¹⁾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스페인 버전이다. 마드리드에서는 마드리드 오르구요(MADO: Madrid Orgullo), 바르셀로나에서는 프라이드 바르셀로나(Pride Barcelona) 혹은 데스필레(desfile, 행진)이라고 부르는 등 축제가 열리는 도시마다 제각각의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오르구요 게이가 가장 크게 주최되는 곳은 마드리드로서 이 축제는 6월 28일이 지나는 첫 번째 주말에 추에카(Chueca) 마을을 중심으로 열린다. 추에카 마을은 근대화, 아방가르드 그리고 관용의 상징으로 성적 자유를 표방하는 곳으로 마드리드의 성소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²⁾.

스페인에서는 동성애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1977년 처음으로 열렸다³⁾. 시위가 열린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3년 마누엘 아사냐(Manuel Azaña) 정부에서 나태한 자와 무뢰한에 관한 법(Ley de vagos y maleante)을 제정했다. 법의 본래 취지는 사회가 위협하다고 간주하는 사람

1) LGBT는 성소수자들을 이르는 말로 각각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이다. 스페인에서는 간성애자(Intersexual), 퀴어(Queer)를 포함해서 LBBTIQ라고 부르기도 한다.

2) http://www.spain.info/es/lugares-interes/madrid/barrio_de_chueca.html

3) B. Enguix, 2017. 'Protesta, mercado e identidad en las celebraciones del Orgullo LGTB en España' Convergencia. no.73. p.165-186



추에카 마을에서 열린 오르구요 게이 (출처: <https://elpais.com>)

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통제,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54년 프랑코 독재 정권에서 해당 법에 동성애자를 추가하면서 소수성애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코 정권이 무너진 직후 열린 1980년대부터 추에카 마을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모여 오르구요 게이 축제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마드리드의 중심지인 그란 비아(Gran vía)와 가까웠지만 성적 소수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마을을 형성할 당시에는 이웃 마을들과의 공존이 쉽지 않고 억압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다. 1997년 처음으로 화려한 장식을 한 마차들과 함께 추에카 광장과 펠라요(Pelayo)거리를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펼쳐졌다. 이후 2004년 AEGAL(마드리드 LGBT 연합)의 설립과 함께 조직적으로 축제가 형성되었다⁴⁾. 2009년과 2010년에 열린 유로프라이드(Europride)에서는 우수조직상을 수상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마드리드에서는 동성애 자유 시위 40주년을 기념하며 2017년 유로프라이드와 월드 프라이드(World Pride)를 동시에 주최하면서 축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스페인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2005년 7월 3일 부로 합법화되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이후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인

4) <http://www.worldpridemadrid2017.com/home/somos>



1977년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동성애 반대 시위 (출처:<http://www.museoreinasofia.es>)

로 허용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4년 사회학 연구 센터(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66%가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⁵⁾ 동성간의 결혼 허용은 2004년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당의 대선 공약으로 사파테로(Zapatero) 대통령 당선 이후 2005년에 합법화되었으며 같은 해 4,500쌍 이상이 결혼했다.⁶⁾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빠르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에서 소수성애자는 마리콘(maricón), 마리키타(mariquita)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는 마리아(María) 혹은 마리아를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마리카(Maric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성애자를 여성으로 취급하는 마초주의 어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소수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상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오르구요 게이의 표어는 ‘옷장에서 나오자’가 되었다.

5) <http://www.elmundo.es/elmundo/2004/07/22/sociedad/1090498770.html>

6) <http://www.20minutos.es/noticia/133797/1/gays/matrimonios/bodas/>



마드리드 시청과 시벨레스 광장은 월드프라이드 주최를 기념하여 조명을 무지개빛으로 바꾸었다.
(출처: <https://ecophiles.com>)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오르구요 게이

오르구요 게이는 과거의 투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과 그런 권리를 수호하는 것, 차이를 존중하며 정체성과 행동, 기대치, 신념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 다양성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 소통의 발전을 위해 행사의 조직과 참여를 권장하는 것 그리고 축제 참가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과 같은 표어를 가지고 있다. 오르구요 게이의 축제 섹션에서는 하이힐 신고 달리기와 같은 전통적 행사가 열린다. 그 외에 추에카 키즈(Chueca Kids)와 같은 프로그램의 인형 연극, 밴드 공연, 놀이 등을 통해 어린이도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축제 참여 연령대가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동성애 축제에서 흥미로운 점은 위의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나는 그렇게 옷장에서 나왔다(Así salí del armario)의 광고 (출처: <https://elpais.com>)

동시에 드러나는 지역 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마드리드에서는 구조적으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권리를 요구하는 보다 정치적인 색을 띄며 국가에 속하는 LGTB 연합들이나 비정부기구, 정당,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요구적 성격이 강하다. 다른 하나는 마차들의 행진으로 잘 알려진 축제 중심의 구조이다. 이 경우에도 LGTB와 정당의 지원을 받고 특히 기업의 후원을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된다. 더불어 축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 오르구요 혹은 프라이드 주간에는 보다폰(Vodafone), 스포티파이(Spotify), 페이팔(Paypal), 이베이(eBay),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코르테 잉글레스(Corte inglés), 이베리아(Iberia)와 같은 스페인 기업도 축제를 후원하며 행진에서 마차를 통해 광고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치적 특성과 축제로 나뉘는 마드리드와 달리 대조적으로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데,⁷⁾ 프라이드 바르셀로나의 경우, 마드리드처럼 섹션이 구분되어있지 않고 축제의 의미가 강하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오르구요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7) Enguix, 2017.



‘다른 이의 시선’ 전시회 카탈로그 (출처: <http://www.tiendaprado.com>)

를 제공한다. 가령 프라도 박물관의 경우, 월드 프라이드 마드리드 2017(World Pride Madrid 2017) 축제의 일부로 ‘다른 이의 시선: 차이를 위한 장면들(La Mirada del Otro: Escenarios para la diferencia)’ 전시회를 주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동성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성 정체성의 감상적 관계의 역사적 현실을 고찰하는 작품들을 다룬다. 고전 시대부터 동성애를 다룬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다니 움피, 로드리고 모라에스 저서 『엄마의 원피스』 표지 (출처: <http://elasombrario.com>)

불멸의 우정(amistades inmortales), 동성애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은 예술가의 작품을 다룬 욕망을 쫓다(perseguir los deseos), 몸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불복종을 드러내는 기만적 진실성(engañosas apariencias), 동성애의 신화적 성격을 다룬 신처럼 사랑하다(amar como los dioses) 그리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야(Francisco de Goya)의 〈힐라 숙모의 마리콘〉(El Maricón de la tía Gila)과 같은 작품을 다룬 다른 시선들(otras miradas)과 같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에도 동성애 캐릭터를 추가하는 등 소수 성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르구요 게이의 주제가이자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가요인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가〉(A quién le importa)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중요한 것 보다 자기 신념에 확신을 가지는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도 주는 함의가 있다.

허수진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